

A Study on Korean Old Literatures lie Sporadical in the Various Place

韓國古文獻의 地域的 分布考察

梁 泰 鎮
國土統一院司書官

1. 古文獻의 概念

古書 또는 古文獻을 定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本稿에서는 다만 古文獻에 대한 時間的 限界性을 西紀 1593年 李朝 宣朝 25年 任辰亂 前을 基準으로 그 이전에 發刊 또는 筆寫된 文獻들을 通稱하여 古文獻이라 指稱하고자 한다.

實上 任亂 前, 後를 對比하여 現存하는 文獻들을 살펴볼 때 비록 任亂前 文獻의 現存은 極히 稀小함을 누구나 否認하지 못 할 것이다. 이러한 事項은 비단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同年代의 日本慶長年間이나 中國明나라 萬曆以前의 文獻이 稀小함이 東洋 三國의 共通要因이다.

2. 散失된 古文獻

우리의 先祖들이 남긴 훌륭한 文獻이 안타깝게도 오늘 날 단지 書名만이 傳해 내려 오고 貨物이 없는 書冊들이 적지않음을 볼 때 이러한 文獻들을 萬의 하나, 天祐神助로 接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원에서 이들 書名들을 아는데로 적어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壇君記를 비롯하여 神誌秘詞, 震檀九變圖局, 高句麗留記一百卷, 李文貞의 高句麗新集五十卷, 同朝의 九執歷, 高興의 百濟書記, 居添夫의 新羅國史, 新羅古記, 新羅古史, 新羅記, 新羅舊記, 新羅殊異傳, 崔致遠의 帝王年代歷, 仙史, 金大問의 高僧傳 同 樂本, 同 花郎世記, 同 漢山記, 鷄林雜傳, 大矩師의 三代目, 崔承祐의 餽本集, 金長淸의 金庚信行錄十卷, 三韓古記 海東古記, 三國史, 高僧, 元曉, 義湘, 神昉, 圓測, 順環, 義寂, 憬興, 勝狀, 道諶, 遁倫, 太賢 등 多數의 著述과 高麗時代에 와서 金寬毅의 編年通錄, 同王代의 實錄, 洪灌의 編年通錄續編, 閔漬의 本國編年綱目, 鄭可臣의 千秋金鏡錄, 姜邯贊의 樂道郊居集, 同 永善錄, 崔惟淸의 李翰林集註, 同 柳文事實, 金錄의 海東秘錄, 吳世文의 歷代家, 毅宗勅選의 風謠詩選, 大覺國師實錄, 金富軾의 電川集, 李仁老의 銀堂集, 同 雙明齊集,

崔允儀의 詳定古今禮文, 金克己의 金員外集, 高麗三代 歷代實錄, 高麗 顯宗朝에 始役하여 文宗朝에 끝난 大藏經 六千卷等이다.¹⁾

우리의 先祖들은 數 많은 著述을 남긴 반면 저 멀리 新羅 眞興王때 陳使 劉思 등이 持來한 經倫 一千七百卷을 비롯하여 高麗 李氏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中國을 通하여 數 많은 圖書를 輸入하여 왔음도 記錄을 通해 散見할 수 있다.

그러면 이처럼 傳來된 古文獻들을 주로 어떠한 곳에 收藏되어 왔으며 그 연유는 어떠한가를 概括的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3. 嶺南地方에 典籍이 偏重된 緣由

常識的인 見解로는 우리 나라의 古文獻 集積도 서울을 中心으로 京畿一圓에 가장 많으리라 생각되나 實際는 三南地方인 忠淸, 全羅, 慶尙道가 단연 收藏量이 많으며 三南地方中에서도 慶尙道가 다른 어느 道보다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그 緣由를 살펴 보면, 慶尙道 地域은 우리나라 歷史上 가장 찬란한 文化를 지녔던 新羅가 嶺南 左岸에서 일어나 溟江과 泥河南쪽을 統一하여 오랫동안 韓民族을 다스려 왔다.

新羅의 保守的이고도 現實性은 서울을 다른 곳으로 한번도 옮기지 않고 近 千年동안 固定하고 있었으므로 慶州를 中心으로한 그 一圓이 찬란한 文化를 손쉽게 吸收할 수 있었을 것이며 新羅의 뒤를 이은 高麗는 新羅의 文物과 地方勢力을 그대로 傳授하였다.

高麗 太祖 王建의 寬仁 大度로 慶州는 兵火의 慘劇을 입지 않았고 敬順王은 尙後에도 事審官이 되었으며 其他 다른 功臣들도 鄉邑의 事審官이 되어 傳來의 文物이 그대로 傳授케 되었다. 따라서 嶺南一帶는 慶州를 中心으로 의연히 新羅 最高의 文化를 保持하며 高麗 또한 新羅의 政權과 地方勢力을 그대로 이어 받아 수 많은 人材를 輩出し켰으며, 高麗時代에 대체로

1) 辛東擘. 朝鮮古書書籍의 傳藏 散失 (一). 春秋 2卷 7號, p.29~30.

完成한 民族制度의 貫鄉이 南韓地方을 中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그 緣由를 알 수 있다.²⁾

이러한 三南地方이 한층 發展의 拍車를 加한 것은 近世朝鮮 五百年間의 政策이 西北人의 抑壓과 參政不許로 말미암아 自然 畿湖, 嶺南에 重點을 두게 되었다. 이에 대한 典據로서는 英相배의 有明한 學者인 淸譚 李重煥이 지은 “八域地”(一名 擇里志)에 「太祖以將師 受王氏禪代 其佐命切臣 又多西北猛將 既得國 遣命西北人 勿大用 以北 平安 咸鏡 兩道 三百年來 無顯官 或有登科第者 不過縣令」이라는 記錄으로 보아 西北人의 抑壓政策이 李朝 太朝時에 비롯함을 알 수 있다.³⁾

其後 歷代 임금이 西北人 억제정책을 써 自然히 이 地域 人士들은 文에 뒤떨어지고 文人 學者가 나지 않으며 書籍의 傳藏 普及은 도저히 바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西北地方에 書籍이 稀貴하다는 事實은 故 無涯 梁柱東博士의 訪書餘錄을 보아도 充分히 알 수 있다.

訪書餘錄의 몇 句節을 여기 引用하여 보면

「西北에 冊이 없다. —이것은 나의 數年來 訪書한 結果로서의 結論이다. 平壤에서 冊卷이나 있다 하는 데는 모조리 찾아 다녀 보았고 혹은 학생들을 經由하여 知友를 中間에 넣고 平安南北 黃海道方面을 열 마간 찾아 다녀 보았으나 있는 것은 대개 七書나 科文, 私草類, 千卷以上 있다는 집의 稀書가 겨우 二柱 近思錄 朱子語類 따위의 閭洛書籍이다.

朝鮮冊은 원래 드문데다가 있어도 흔히 있는 文集類요 野乘類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것이 五百年來 官達의 길어 거의 없고 學問의 필요가 없이 겨우 末科나 目的하는 詩賦 表策 科文에 단 從事하던 그들에 무슨 典籍이 있었으랴⁴⁾」라고 하여 西北地域에 책이 없음을 實證하였다.

4. 地域別로 본 古文獻 分布狀況

嶺南地方出身으로 孔子의 廟庭에 陞座한 朝鮮儒賢 十八人中 薛聰을 비롯하여 崔致遠, 安奭, 鄭蔓周, 金宏弼, 鄭汝昌, 李彥迪, 李滉 등 八巨儒가 모두 嶺南出身으로 선비로서의 最大의 榮예를 차지하고 있다.

1940年代에 前 國立圖書館長이었고 6.25事變으로 拉致되어간 李在郁氏의 “朝鮮典籍에 就하여”라는 論文에서 嶺南地方의 藏書가 豐富한 原因을 밝히고 實際 調査한 기록을 여기에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慶尙道 地域의 地方別 藏書家數를 보면 安東 12人, 醴泉 3人, 軍威 1人, 星洲 1人, 高靈 1人, 淸道 1人, 達成 11人, 居昌 1人, 奉化 4人, 榮州 1人, 永川 1人, 漆谷 1人, 慶州 3人, 密陽 5人, 晉州 1人, 咸昌 1人이다 이 밖에도 辛東燁氏의 調査로는 東萊 3人, 蔚山 3人

河東 2人, 固城 2人, 昌原 3人, 金海 4人, 咸安 2人, 晉州 3人, 陝川 3人, 山淸 2人으로 나타났으며⁵⁾ 이 외에 日帝時 發刊한 朝鮮史編修要覽에 보인 史料借入을 하기에 所藏者들을 各 道別로 調査한 것을 보면 京畿道(서울包含) 56, 忠淸南道 25, 全羅南道 26, 忠淸北道 26, 全羅北道 26, 慶尙北道 47, 慶尙南道 11, 平安南道 1, 江原道 17, 咸鏡北道 6, 黃海道 6, 平安北道 10, 咸鏡南道 21로 나타났다.⁶⁾ 以上 276人中 三南地方이 159人으로서 全 人員의 6割이상을 차지하고 이 중에서 慶尙道 58人이 八道中 最高의 數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李朝末 徐有渠의 鏤板考에서 書籍의 道別 所藏을 調査事項을 보면, 京畿道 130, 忠淸道 38, 全羅道 131, 慶尙道 1826, 黃海道 23, 江原道 14, 咸鏡道 57, 平安道 95⁷⁾로서 역시 慶尙道가 斷然히 最高峯을 이루었으며 그 다음은 全羅道가 2位로 三南地方에 所藏分布가 편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結 語

以上の 諸般 調査統計는 近 30年이 지난 오늘 날에 와서는 적지 않은 變化가 있으리라 생각은 되나 以外에도 상당수의 所藏家가 조사 당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그리 큰 變動은 없으리라 본다.

다시 無涯의 訪書餘錄을 引用하여보면

「南道 各地에 있는 名賢子孫들의 藏書는 아직 可觀한 質과 量이 있다고 한다. 내가 직접 往訪한 2,3處도 모조리 數千卷의 藏書가 있어서 稀貴한 珍書도 간간히 있었다. …(以下 中間省略)

金台俊氏의 所傳에 의하여도 「萬卷書樓층은 드문 드문 있는 바요 大部分은 一門의 所有가 되어서 全然히 賣却하기는 姑捨하고 借觀도 容易하지 않다하니 保存으로 보아서는 一幸이나 個中에는 貴書가 相當히 있는 모양이요, 쉬운 文集類만 하더라도 黨爭의 덕분으로 甲文에는 甲派 文集이 蒐集되어 있고 乙家에는 乙派이니면 있을 수 없는 遺稿가 많다고 한다.⁸⁾」 여하튼 韓國의 古文獻은 三國地方에 集中되어 있고 그 中에서 嶺南中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最近에 와서는 대체로 서울을 中心으로 적지 않은 古文獻이 모여 드는가 하면, 文庫로서 公共機關에 收藏되어 가는 現狀이다.

2) 辛東燁. 朝鮮典籍分布의 地方的考察과 歷代藏書家. 鄉土, 通卷 第9號, p.5.

3) 李重煥. 八域誌. 咸鏡道編.

4) 梁柱東. 訪書餘錄. 朝光 第2卷, 第2號.

5) 辛東燁. 朝鮮典籍分布의 地方的考察과 歷代藏書家. 鄉土, 通卷 第9號, p.8.

6) 朝鮮史編修要覽. 附錄編.

7) 徐有渠. 鏤板考.

8) 梁柱東. 訪書餘錄. 朝光 第2卷 第2號.